

늘어나는 소비자 분쟁 지역분쟁위원회 활용해보자

법조칼럼



오광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미래)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외제품들을 직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그에 따른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8년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소비자분쟁 증가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이 해외직구 관련 분쟁이었다.

보통 직구를 할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자신이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고 배송만 위탁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있고, 해외직구 대행사에 물건의 구매와 배송까지 맡기는 방식이다.

A씨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커피머신 하나를 구입했다. 제품대금 7만8천원과 배송비 10만원으로 모두 17만 8천원에 구입한 커피머신을 가동시켰는데 누수가 발생하고 전원마저 불량해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전전 금궁하고 있었다.

최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상담 문의 중 하나다. 그만큼 해외 직구가 많다는 증거

다. 대부분의 이러한 분쟁들은 비교적 소액의 구매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몰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결책을 알더라도 돈을 받기 위한 수고로움이나 비용 부담을 우려해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온라인 구매대행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A씨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반품한 제품에 대한 제품대금 환급은 제품대금을 받은 자와 구매대행을 하는 자가 연대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해외직구의 경우 반품을 할 때 해외에서 배송을 해야하므로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가가 문제다. 판매자가 해외사업자이고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반품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에서는 구매대행자에게 반품하고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대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돈을 요구하더라도 온라인 구매대행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 낭패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지레 겁먹기 일쑤다.

소액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포기하지 말고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7개 지역별, 5개의 전문분야 별로 구성된 운영체제로, 필자가 속한 광주·전남 조정위원회는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분야별 전문가, 법조인등으로 구성돼 소비자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그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A씨와 같은 소액의 소비자 분쟁은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조정 성립률이 2018년도를 현재 70%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필자는 소비자 분쟁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소비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다.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난이도, 액수에 상관없이 해결 할 수 있는 빠른 대처를 위해서 소비자분쟁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감사'와 나눔'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기고



김동한 광주시의회 의장

회의 성공적인 개최, 광주시의회의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시정과 의정의 풍성한 수확물을 보여 줄 수 있어 벌써부터 설레고 미소가 지어진다.

조선 순조 때 김해운의 열양(열陽), 곧 한양(漢陽)의 연중행사 기록한 책인 열양세기(열陽歲時記)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加勿勿 減勿勿 但願長似嘉俳日)'라는 말이 나온다.

하늘은 높고 가을을 살피는 천고마비에다 새 곡식과 햇과일 등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만물이 풍성함을 뜻하고,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처럼 중추절인 추석은 한마디로 풍요로운 그 자체를 일컫는 듯하다.

이렇듯 추석은 무르익은 곡식과 다양한 음식을 차려 나누어 먹는 풍성함을 공유하는 날이며, 있고 지났던 조상님과 자연에 대한 감사를 되새기는 날이다.

더불어, 이렇게 모든 것이 흡족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때에, 오히려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게 된다. 모두가 정말로 행복하지, 혹시 상대적으로 더 아프고 쓸쓸한 이들은 없는지 살펴보게 된다.

설레고 들뜬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공허함과 쓸쓸함으로 추석이 더 외롭고 힘든 우리 이웃이 적지 않다. 찾아올 가족이나 귀성객이 없는 홀몸 어르신과 결혼가정 아동 등은 모든 사람이 정겨운 명절이 오히려 가장 허전하고 외로운 날인지 모른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가계 소득이 정체되는 등 살림살이에 여유가 줄어들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그럴수록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따뜻한 가슴과 배려의 마음으로 보듬으려는 우리 사회의 훈훈한 '사랑 나눔과 이웃 사랑'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마음을 주고받는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함께 나누는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기쁨은 나누면 커지고 슬픔은 나누면 덜어진다고 한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시민 모두가 '감사와 나눔'이라는 선물로 더욱 마음 뿌듯하고,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빚고의 밤하늘에 휘영청 떠오를 한가위 보름달에 광주 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해 본다.

발언대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세상 만들어야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따라서 자가용 차량 등을 이용한 민속 대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와 전국 각 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의 교통안전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연휴 기간 地·속 압체 교통관리 및 체공시 공중순찰 등을 통한 국민 교통안전 편의와 원활한 교통소통 관리를 위해 공중헬기를 집중 운용할 계획이고 비상근무제에 돌입해 교통사망사고 예방 등을 위한 특별 교통관리 및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교통안전 편의를 위해 도로공사 및 시·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시립묘지

등에 대한 성묘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414건, 사망 8명, 부상 7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2운장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 힘입어 중전보다는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개정된 운장호법의 시행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잘못된 음주문화 폐해의 심각성은 아직도 여전하다.

술한 잔의 댓가로 사랑하는 가족과 명에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삶을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음(愚)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선진 교통안전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이라는 슬로건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등 운전자의 교통안전법규의 준수이행을 당부하는 가시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시 노출을 통한 생활 밀착 참여 홍보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나만 편하면 되, 내가 먼저"라는 지나친 이기심과 양보와 배려의식 문화가 실종된 교통안전의식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추석에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로 사랑하는 내가족과 친지 모두에게 교통안전불감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보다 더 성숙하고 안전한 시민의식이 선행돼 '사람이 먼저이고 최우선시' 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의식을 다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백영규 (광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준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체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대표전화 (062) 606-7700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문화체육부 (062)606-7737	정치부 (062)606-7730 사선부 (062)606-7762
경제부 (062)606-7713 뉴미디어부 (062)606-7760	사회부 (062)606-7722 서울지사 (02)313-1681
지역사회부 (062)606-7723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독자제보 062-606-7722·FAX 062-606-8765 E-mail mdli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li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li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설

전남바이오 산업, 美 특허 획득에 청신호 켜졌다

전남도가 새 천년 비전사업으로 내세운 '블루 이코노미' 산업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왔다고 한다. 전남도와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신약개발을 공동 연구중인 박세필 제주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알츠하이머 질환 연구 모델 형질전환 돼지 생산기술'을 출원, 미국 특허를 최종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치매 치료제 개발의 관건이 되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세계 처음이라 할 이같은 특허 획득은 치매에 걸린 돼지를 생산, 치매 원인을 밝혀 이를 신약개발에 응용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치매 돼지 생산 원천기술 확보는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1세대로 국내에서 처음 배아줄기세포를 확보한 줄기세포계의 선구자다. 지난 2009년 멸종위기 제주 흑돼지 복제를 비롯해 치매 걸린 돼지 생산에 성공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아왔다.

오늘날 바이오 산업은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로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박교수의 알츠하이머 형

질돼지 생산기술 특허로 오는 2024년부터 9년간 4조4천억원의 매출이 예상될 정도로 급증하는 환자 비율로 보면 가까운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박교수의 특허 획득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기술 독과점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기술 독립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특허 획득으로 전남 블루 이코노미 산업의 핵심인 바이오 신약 개발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바이오 산업을 위원으로 하는 '전남도 줄기세포 산업화 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화순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전남도와 박교수가 거둔 성과를 계기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과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높다. 전남도가 삼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전남 바이오 산업의 전망을 밝게하고 꿈의 치매 치료제 개발이 머지 않은 미래로 다가왔다.

온가족 모이는 한가위 밥상머리 소재 가득할듯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귀향이나 귀성을 앞둔 이들에게는 벌써부터 가족·친지들을 만날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다. 정겨운 이들을 만나 기쁨을 나누고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달랠 꿀맛같은 연휴가 그래서 더욱 기다려진다.

연휴기간 동안 가족·친지들의 밥상머리에 오를 화제거리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가득하다. 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되리지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임명에 따라 여·야, 진보와 보수, 중도층까지 각각 견해가 상충하며 뜨거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대적 과제라 할 검찰 개혁 등의 문제와 관련해 더욱 그렇다.

내년에 치러질 제21대 총선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의 향배와 선거구 조정 등은 빼놓을 수 없는 화제도 떠올랐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례로 선거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뤄진다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에 대한 관심들이 그

것이다. 현행 선거구제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적잖은 흠결이 있다는 오랜 지적에서 비롯된 만큼 선거법 개정은 시대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현행 선거구나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변화될 선거구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인지도 밥상머리의 주요 소재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현역 의원 등 각 정당별 후보들의 전망이나 평가와 더불어 정치 신인 등 잠재적 입지자들의 오르내림도 만만찮은 이야기 거리가 될 듯하다.

광주·전남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이슈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슈들은 지역 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연관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보통사람들의 희망은 살림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데 모아진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살아가기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사정이 응석해지고 불편함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번 명절 연휴만이라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넉넉하고 파스했으면 싶다.

사면초가(四面楚歌)

중국 초(楚)나라 항우(項羽)와 한(漢)나라 유방(劉邦)이 천하를 다투던 때, 항우가 유방에게 쫓겨 휴전을 하고 고향 초나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해하(垓下)에 이르러 항우는 한나라 추격대에 포위당하고 만다.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고 군량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나라 군대는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다.

사력을 다해 겨우 버티던 어느 날 사방에서 구슬픈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다. 한나라가 항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포로로 잡힌 초나라 병사들을 시켜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다.

한나라 군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자 항우는 이미 초나라가 한나라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마지막 전열을 정비해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지만 결국 실패하고 자결한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이거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를 일컫는다.

출범 14개월째를 맞은 민선7기 광주시정이 바로 사면초가 형국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투자자를 모집해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급로별모터스' 자동차 공장 건립에

첫발을 내딛었지만 초대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대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임명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를 두고 시민단체까지 갈려 지역여론이 분열되고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코앞(2020년 7월 시행)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도 속을 썩이고 있다. 광주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이 비리의혹에 휘말려 도시철도2호선 기공식이 열린 '전첫날'에 행정부시장실과 시감사위원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 수사에서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소송전 등으로 비화돼 도시공원을 해제해야 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서둘러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선장이 없어 출항을 못하는 배, 힘들게 정상에 오르니 또 다른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는 험준한 상황. 이용섭 시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길은 두 가지 밖에 없다.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좌고우면 않고 돌파하거나...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혼란은 깊어진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시장의 결단만 남았다. 김대우 정치부 부장대우 kst430@srb.co.kr

약수터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 뉴스가 함께 만듭니다